동아시아 불교 속 친근한 미륵의 화신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③ 온자한 미륵의 미소, 포대화상(布袋和尙)



아이들과 포대화상의 이야기는 민간으로 스며들어 다산과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오자유희미륵, 백자미륵으로 발전한다. 말 그대로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포대화상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관련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만 중국 명나라 때 활동한 이린의 작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이린필 포대자존십팔자도권(중국 명대 1636년, 상해박물관).

세상이 늘 평화롭지는 않다. 어지러운 혼란기는 늘 존재했다. 그것이 전쟁과 권력 다툼이건, 경제적 침체기이건 간에 말이다. 사회적 혼란기 속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항상 백성이었다. 이에 백성들은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Messiah), 즉 구세주(救世主)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와 같은 사상은 종교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기독교 문화 속 예수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아들이자 종교적 지도자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칭송을 받는 구세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불교문화 속 구세주는 누구일까? 모두 알다시피 미륵불(彌勒佛, Maitreya)이다.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열반 이후 약 56억 7000만 년 뒤 세상에 강림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불은 현재 보살의 모습으로 도솔천(兜率天)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생사를 떠나 세상 모든 고통과 근심을 잊는 이상 세계를 건설한다는 미륵사상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안정감을 주었고, 동아시아 역사 속 혼란기 때마다 빠짐없이 유행해 민간신앙으로도 확장됐다.

중국 역사 속 최대 혼란기 중 하나였던 오대십국시대에 '미륵의 화신'으로 불린 이가 있다. 바로 포대화상(布袋和尙)이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사찰 곳곳에서 볼록한 배를 드러낸 채 포대 자루를 쥔 조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상이 바로 포대화상이다. 그런데 모름지기 미륵이라 한다면 중생을 구제하는 영험하고 권위 있는 모습일 것인데, 그 화신이라는 포대화상은 보편적인 미륵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포대화상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았길래 미륵의 화신으로 불리는 것일까?

포대를 짊어진 미륵의 화신

포대화상의 본래 법명은 '계차(契此)'로, '장정자(長汀子)' 혹은 '정응 대사(定應大師)'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 당(唐)나라 말기 절강성(浙江省)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정확한 출생과 성장 과정은 기록마다 다르다. 하지만 공통된 부분은 포대화상의 행적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진 〈송고승전(宋高僧傳)〉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모습이 비대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배가 불룩하였는데, 말에 상함이 없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리 잡고 누워 잤다. 항상 지팡이에 베로 만든 망을 걸고 저잣거리에 들어가 물품을 보면 구걸하였는데, 장과 생선 절임에 이르기까지 겨우 입에 넣고 조금 나누어 주머니에 다시 넣으니, '장정자 포대사(長汀子 布袋師)'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도 "항상 지팡이를 짚고 포대를 들고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물품을 보면 구걸했고, 얻은 물품을 모두 포대에 넣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로 이 부분이 계차라는 본래 법명이 있는데도 포대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해진 이유다. 포대화상은 항상 누더기 차림에 포대 자루를 짊어진 채 구걸을 했다고 전하며 그것이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포대화상을 미륵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포대화상이 미륵으로 불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포대화상의 신이한 행적이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포대화상은 사람의 길흉부터 날씨까지 예측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리 잡고 누워 잤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포대화상은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에도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는데 눈밭에 누워 있어도 그의 몸에는 단 하나의 눈가루조차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확인된다.

포대화상이 미륵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게송과 관련 있다. 기록에 의하면 포대화상은 916년 혹은 917년 무렵 악림사(嶽林寺)라는 사찰에서 입적했는데 마지막 순간 이와 같은 게송을 남겼다고 한다.

"미륵 참 미륵이여, 천백억의 몸을 나투어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하네."

게송을 남긴 포대화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는 자씨(慈氏)가 행적을 남긴 것이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게송에 언급



일본의 포대화상 호테이 등 칠복신을 표현한 우타가와히로시게필 칠복신도(일본 에도시대 1840년, 영국 V&A뮤지엄).



포대화상의 모습을 표현한 포대화상상(중국 청대 17세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길흉 · 날씨 예측 능력 등 신이한 행적
입적 시 게송으로 훗날 '미륵 화신' 칭송
일본 칠복신 중 '행운 신' 호테이로 불려
포대 속 온갖 것 가난한 이들에 나눠

됐듯, 미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중생들은 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포대화상을 미륵의 화신으로 칭송하게 됐으며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전파된 거의 모든 국가에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다고 한다.

행운의 신이 된 일본문화의 포대화상

일본에는 칠복신(七福神)이 있다. 말 그대로 '행운을 상징하는 일곱 신'이라는 뜻이다. 칠복은 불교 경전인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密多經)〉 내용 중 '칠난즉멸칠복즉생(七難即滅七福即生)'에서 유래됐다. "일곱 가지 재난이 금세 소멸하고 일곱 가지 복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 문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곱 재난 구제를 의미하지만, 일본 특유의 기복사상과 만나 무로마치시대 무렵부터 대중화됐다.

칠복신의 구성원은 토속신 에비스(惠比寿)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교와 도교에서 건너온 신이다. 대표적으로 불교 사천왕(四天王)에서 유래한 비샤몬텐(毘沙門天)과 도교의 수성노인(壽星老人)에서 유래한 주로진(壽老人)이 있다. 여기서 포대화상은 불교의 신이자 유일한 실존 인물 출신으로 '호테이(布袋)'라고 불리고 있다. 칠복신으로서의 포대화상은 행운의 신이자 점술가, 술집 주인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길흉을 점치고 날씨를 예측한 행적을 살펴본다면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칠복신은 현재의 아이돌만큼이나 그 인기가 현지에서 상당하다. 일본에는 매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칠복신을 순례하는 문화가 있다. 또한 칠복신은 새해를 맞이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 주기 위해 반야용선(般若龍船) 형태의 배를 타고 찾아온다는데, 이런 관념 때문인지 정월 초하루에 배를 탄 칠복신을 그린 세화(歲畫)를 머리맡이나 대문 앞에 붙여 둔다고 한다. 칠복신을 표현한 여러 미술 주제에서 포대화상은 볼록한 배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포대 자루를 짊어진 모습이다. 이 포대 자루에는 분명 사람들에게 나눠 줄 복이 한가득 들어 있을 것이다.

천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륵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포대화상은 친숙하고 인자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비록 저잣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포대화상은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나눠 줬다고 한다. 〈불조통기〉에는 "16명의 아이들이 떼를 지어 시끄럽게 쫓아다니며 다투어 포대를 끌어당겼다"라는 내용이, 〈정응대사포대화상전(定應大師布袋和尙傳)〉에는 "늘 석장(錫杖)과 포대를 가지고 스스로 다니며 아이 18명이 따라다녔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포대화상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아이들에게 화를 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누구보다 인자한 미소와 함께 보듬어 주며 먹을거리를 나눠 줬을 것이다. 이는 포대화상이 지닌 포대 자루가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용도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커다란 주머니 속에 있는 온갖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포대화상, 마치 우리에게 친숙한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모습이다.

아이들과 포대화상의 이야기는 민간으로 스며들어 다산(多産)과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오자유희미륵(五子遊戲彌勒), 백자미륵(百子彌勒)으로 발전한다. 말 그대로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포대화상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관련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만 중국 명나라 때 활동한 이린의 작품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도 확인되는 것을 보아 꽤 이른 시기부터 정착된 관념임을 알 수 있다.

마치며

불교가 전래된 우리나라에도 미륵사상이 유행했으며 자신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다. 대표적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弓裔)는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면서 주변 세력을 결집했고, 근대기에 발생한 국내 신흥종교에도 구원의 성격을 지닌 미륵사상의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미륵신앙은 불교의 범주를 넘어 동아시아 각지에 퍼져 있는 하나의 독립신앙으로 발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포대화상은 동아시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미륵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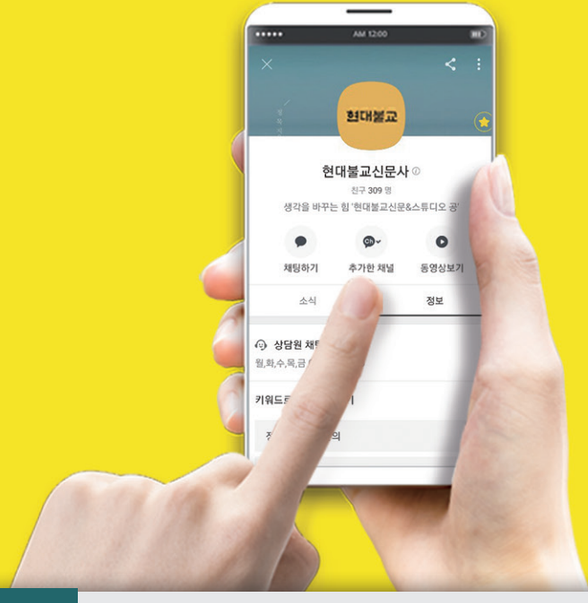


김용덕 작가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